

주식전략

우리 코스닥이 달라졌어요

분석의 기본 가정

- 글로벌 AI하드웨어 병목에 코스닥 내 주도업종 건강관리→반도체로 구조적 변화 초입
- 하반기 정부 주식시장 정책은 코스닥에 집중 예정으로 코스닥 내 대형주 유리한 환경

주식전략 이상연

T.02)2004-9045

lee.sang-yeon@shinyo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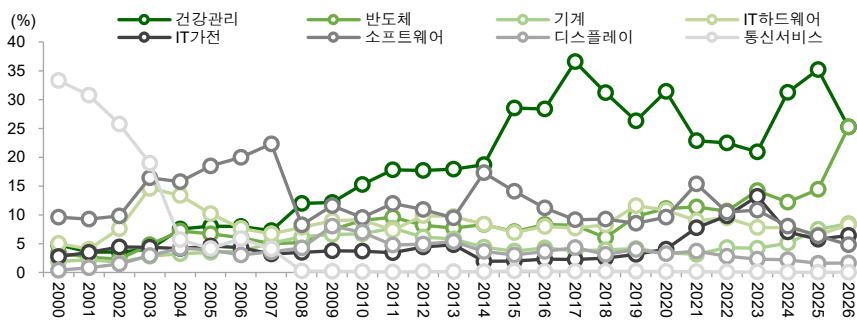
코스닥의 구조마저 바뀌버린 글로벌 하드웨어 병목

글로벌 AI하드웨어 병목에 코스닥이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여전히 코스닥 내 시가총액 1위 업종은 건강관리이지만 2위 업종인 반도체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소부장이 일부 포함 되어있는 IT 하드웨어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다. 이에 코스닥 강세는 유동성 개선 또는 정책 기대감 보다도 글로벌 AI 투자 확대라는 실질적인 산업 변화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와 함께 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코스닥 수익률 개선을 단순한 낙폭 과대 반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코스닥 또한 주도 업종이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의 초기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정책도 이제 코스닥을 정조준

코스닥 전반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재부각될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당사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시행이 예정된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정책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코스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7월 1~3일 개최 예정인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를 전후해 금융당국의 세부 추진방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기대감 역시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단기적으로 과열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주의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주가의 단기 부담 요인이긴 하나 투자자 관점에서는 정책의 세부 내용과 함께 조정 국면은 오히려 소부장 업종 전반에 대한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표 1. 통신 → 소프트웨어 → 건강관리 → IT가전(2차전지) → 반도체로 코스닥 내 주도 업종 변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 구조마저 바뀌버린 글로벌 하드웨어 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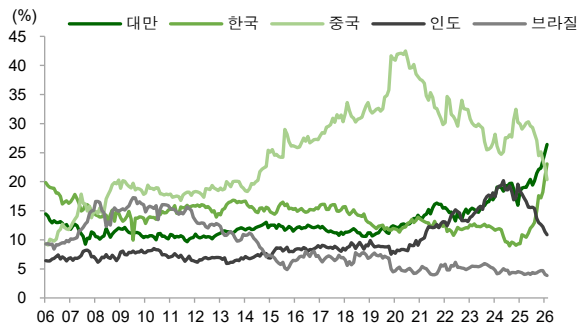
20여년만의
신흥국 증시 판도 변화:
대만 1위, 한국 2위

최근 대만증시와 한국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20여년만에 MSCI 신흥국 지수 내 순위가 변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글로벌 AI 하드웨어의 병목에 따른 수혜 산업이 변화하면서 20년만에 신흥국 증시의 구조마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향후 외국인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국가별 비중 변화에 따라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수행해 중장기적인 수급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은 언제 강했는가

2000년 이후 코스닥의 연간 수익률이 코스피를 상회한 것은 11번이다. 그 중에서도 10%p 이상의 수익률 차이가 난 것은 2005년, 2014년, 2015년, 2020년의 단 4번뿐이었다. 2005년에는 IT경기 회복 기대감에 중소형 성장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 2014-2015년에는 저금리 환경에서 중소형 성장주 중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선호도가 확대되던 시기이다. 또한,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본격화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맞물리며 코스닥이 코스피를 큰 폭으로 아웃퍼폼했다. 특히 바이오, 2차전지, 인터넷, 게임 등 고성장 산업(BBIG)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면서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강세가 나타났다.

도표 2. 신흥국 지수 내 국가별 비중 추이: 대만, 한국의 중국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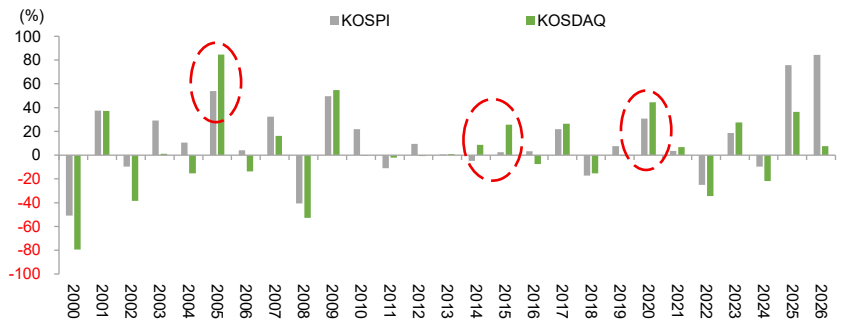
자료 : LSE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신흥국 지수 TOP 10 종목 비중 현황

순위	기업명	국가	비중(%)	업종
1	TSMC	대만	14.46	IT
2	삼성전자	한국	7.78	IT
3	SK하이닉스	한국	6.60	IT
4	텐센트 홀딩스	중국	2.72	커뮤니케이션
5	알리바바	중국	2.07	경기소비재
6	미디어텍	대만	1.64	IT
7	델타일렉트로닉스	대만	1.19	IT
8	홍하이정밀공업	대만	0.91	IT
9	삼성전자(우)	한국	0.86	IT
10	중국건설은행	중국	0.81	금융

자료 : MSCI,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코스닥이 코스피를 10%p 이상 아웃퍼폼한 해: 2005, 2014, 2015, 2020



주) 2026년은 2026.06.12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 시장은 1996년 벤처·IT 기업 중심 시장으로 출범했으나, 지난 30여 년간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2000년대 초반에는 IT버블의 영향으로 통신과 소프트웨어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으며, 2010년대 중반에는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함께 건강관리 업종이 코스닥의 대표 업종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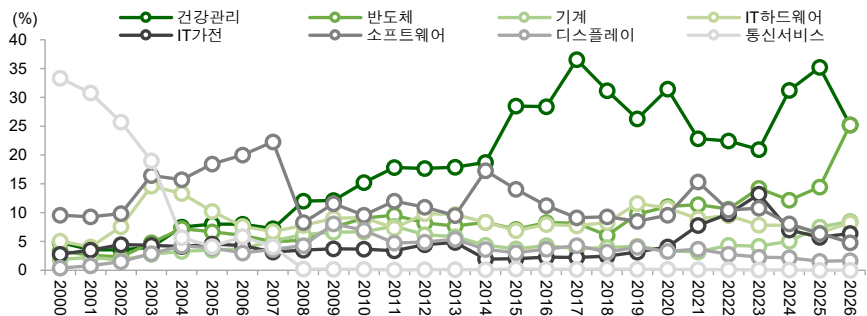
30년 만에 코스닥의
주도 업종이 될 반도체

그런데, 2026년 6월 국내 증시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코스닥 내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 비중이 처음으로 건강관리 업종을 추월하며 최대 업종으로 부상한 것이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업종인 건강관리와 반도체 간 격차는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포함된 IT하드웨어 업종 역시 동반적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주가 강세는 일부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형 반도체 주의 주가 상승에 따른 단순 낙수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소부장에서
2010년대
바이오의 향기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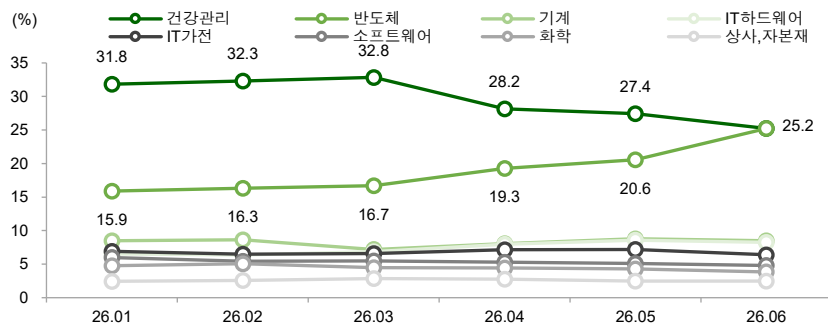
실제로 최근 코스닥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확대는 소부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에 가까워 시장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공급망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0년대 코스닥이 바이오 중심 시장으로 재편됐던 것처럼, 현재는 반도체 소부장 중심 시장으로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향후 코스닥 강세는 유동성 개선이나 정책 기대감에 의한 단기적 현상 보다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이익 성장과 산업 내 위상 변화가 반영되는 구조적 리레이팅 과정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도표 5. 통신 → 소프트웨어 → 건강관리 → IT가전(2차전지) → 반도체로 코스닥 내 주도 업종 변화



주) 스펙 제외, 해당기간 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상장한 54개회사 편입 반영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2026년 6월 처음으로 코스닥 내 반도체 비중이 건강관리를 따라잡은 상황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과거와 달리 메모리 수요 확대>증설 속도 장기 유지 전망

또한 글로벌 메모리 3사는 2023년 이후 지속된 AI 메모리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을 전후로 신규 생산능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는 증설 발표가 오히려 업황 정점의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구조적으로 다르다. 현재는 AI 모델의 규모가 커질수록 GPU 당 탑재되는 HBM 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추론 시장 확대 역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어 AI 수요 확대가 증설 속도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두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경쟁, Sovereign AI 구축 확대, AI Agent 확산, 온디바이스 AI 적용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HBM 수요는 단기간에 정점을 형성하기보다 수년간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026 소부장 사이클은 병목 영역에 집중했던 2023년과 유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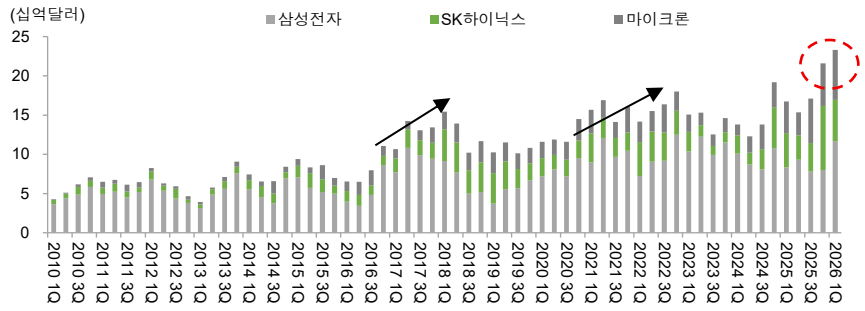
현재의 소부장 사이클은 2023년 사이클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6~2018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당시 시장은 메모리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 자체에 주목한 전형적인 CAPEX 사이클이었다. 이에 따라 장비 발주 순서에 맞춰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등 전공정 장비업체가 먼저 상승했고 이후 후공정 업체로 수혜가 확산되었다. 반면 2021년 사이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연 수요에 따른 공급부족에 주목해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2023년 소부장 강제 국면에서는 HBM 초기 사이클 진입에 따른 패키징 및 테스트 병목 가능성에 주목해 시장은 전공정보보다 패키징과 테스트 영역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했다. 실제로 당시 한미반도체, ISC, 리노공업 등 HBM 생산 과정의 핵심 병목을 보유한 기업들이 가장 높은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다.

현재도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AI 밸류체인 내에 곳곳에 존재하는 병목이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큰 병목은 첨단 패키징과 HBM 테스트 영역이다. HBM 생산능력은 확대되고 있지만 TC 본딩, 인터포저 기반 첨단 패키징, 고대역폭 테스트 및 검증 공정은 높은 기술 난이도와 긴 증설 리드타임으로 인해 단기간 내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 또한 차세대 HBM4부터는 로직다이의 적용 비중이 확대되면서 패키징 및 테스트 난이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AI 서버 수요가 증가할수록 병목 구간의 가치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메모리 3사의 증설 소식은 소부장에게 추가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따라서 최근 소부장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업종 전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메모리 3사의 신규 투자 본격화와 병목 구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소부장 업종의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확장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의 수익률 역시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7. 메모리 3사 분기별 Cap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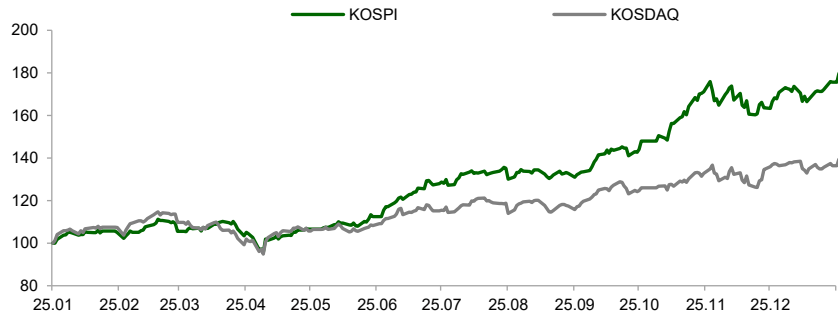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메모리 3사 주요 증설 타임라인

기업	Fab	위치	예상 가동시점
삼성전자	P5 Phase1	평택	2Q27~3Q27
SK하이닉스	Y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Q27~2Q27
마이크론	ID1	미국 아이다호	2Q27~3Q27
	ID2	미국 아이다호	2028 이후
	NY1	미국 뉴욕	미정
	NY2	미국 뉴욕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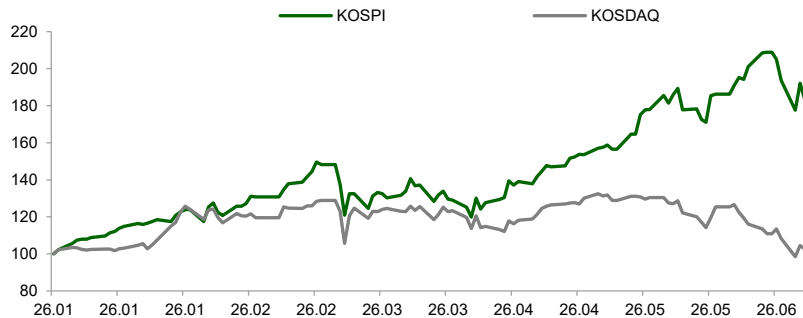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도표 9. 2025 YTD 수익률: 코스피 +75.6%, 코스닥 +36.5%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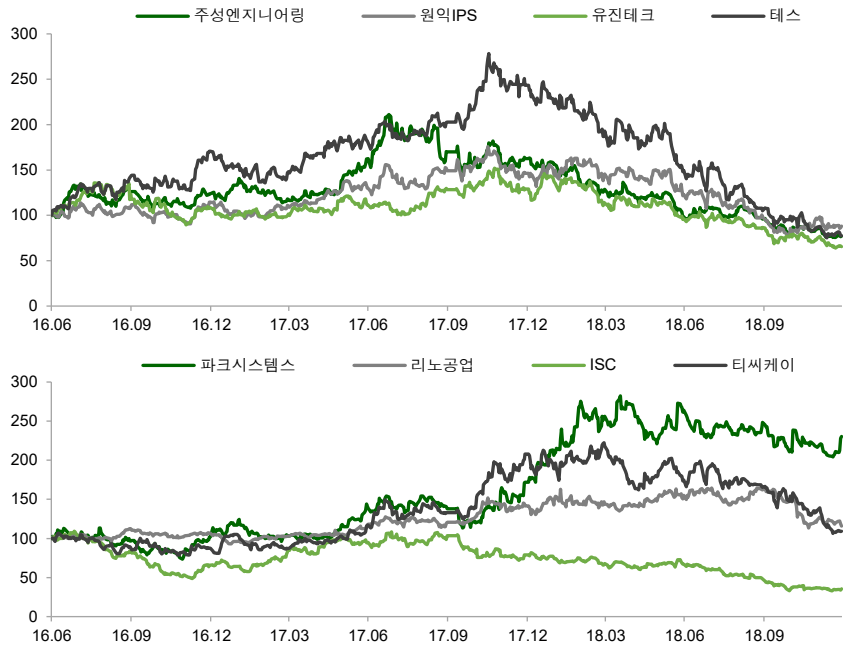
도표 10. 2026 YTD 수익률: 코스피 +83.4%, 코스닥 +2.8%



주) 2026.06.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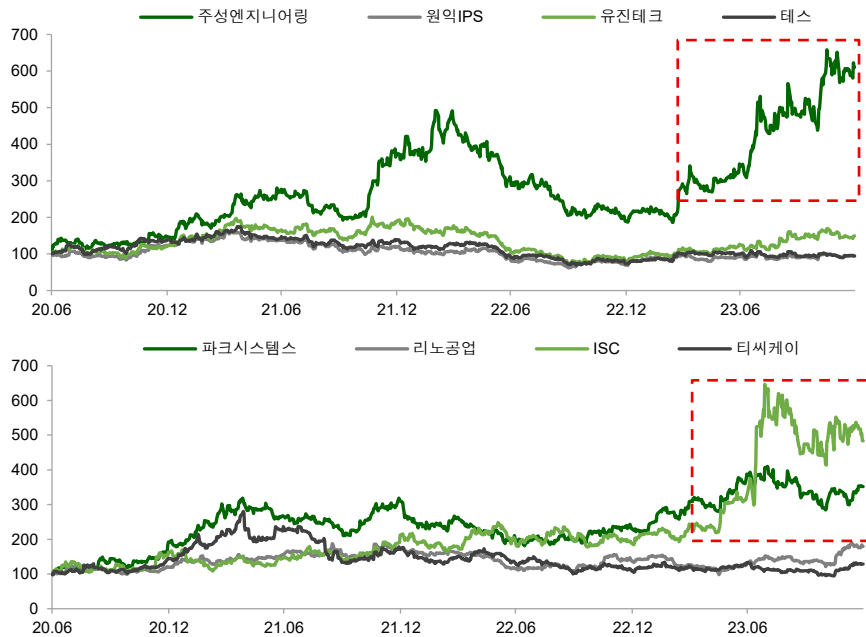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2016-2018 사이클 때는 증설 자체에 주목하며 전공정→후공정 순서로 주가 반응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HBM 초기 사이클에는 패키징 병목이 부각되며 후공정 우위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책도 이제 코스닥을 정조준

7월 1~3일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구체화될
코스닥 활성화 정책

코스닥 전반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재부각될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당사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시행이 예정된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정책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코스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반도체 외에도 좋은 업종은 많다, 2026/05/04](#)). 7월 1~3일 개최 예정인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를 전후해 금융당국의 세부 추진방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기대감 역시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의 핵심은 코스닥 시장을 성장성과 기업 경쟁력에 따라 복수의 세그먼트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량 기술기업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과 일반 기업 중심의 시장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상위 세그먼트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제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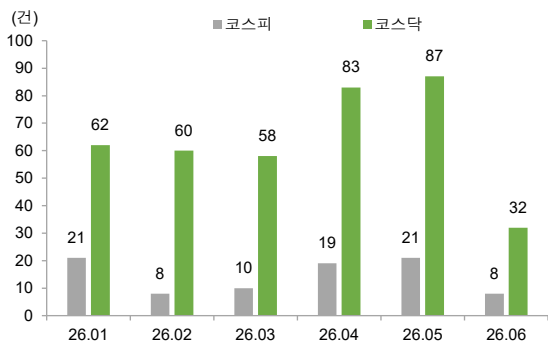
하반기 주식시장 정책의
중심은 당면 코스닥

투자자 관점에서는 정책의 세부 내용과 함께 '코스닥 활성화' 자체가 정책 아젠다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하반기 코스닥 시장은 상반기와 달리 실적과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이익 개선 기대가 코스닥 지수의 하방을 지지하는 가운데, 7월 이후 세그먼트 분리 정책의 구체화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코스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소부장 중
단기 과열 종목은
주가 부담 존재하나
중장기적 비중 확대 기회

다만, 단기적으로 과열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주의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주가의 단기 부담 요인일 수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종목별 수익률 격차 확대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은 특정 종목에 대한 테마성 수급보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증설에 기반한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는 점에서 조정 국면은 오히려 소부장 업종 전반에 대한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표 13. 코스피, 코스닥 월별 투자경고 종목 건수 추이



주) 2026.06.12 기준, 공시일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코스닥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 현황(26.06.15 기준)

분류	해당 종목
투자주의 (48종목)	하이딥, 풍원정밀, 푸드나무, 파크시스템스, 큐캐피탈, 코어라인소프트, 케이퍼항공산업, 청당글로벌, 제이케이시넵스, 제이스로보틱스, 인텍플러스, 이지케어텍, 이원컴포텍, 이엠앤아이, 이노테나, 유진테크, 원티드랩, 우리바이오, 우리기술, 올나시스템, 오픈놀, 오늘이엔엠, 엔젠투루션, 엔시트론, 에이유브랜즈, 에이엘티, 에이에프더블류, 에이에스텍, 아이원, 싸이맥스, 셀레믹스, 서산, 삼육 에스폼, 비에이치아이, 비씨엔씨, 브이엠, 바이오포트, 메카로, 디앤디파마텍, 드림어스 컴퍼니, 두신테스나, 뉴파워프라즈마, 뉴보텍, 네이처셀, THE CUBE&, SM C&C, KGE코솔루션, CSA코스믹
투자경고 (10종목)	나무기술, 광진실업, 크레오에스지, 기기비스, 팜텍, 화신정공, 퍼델릭스, 라이콤, 피에스케이홀딩스, 아스플로

주1 2026.06.12 기준, 공시일 기준
주2) 투자주의종목은 2026.06.15 지정 예정 한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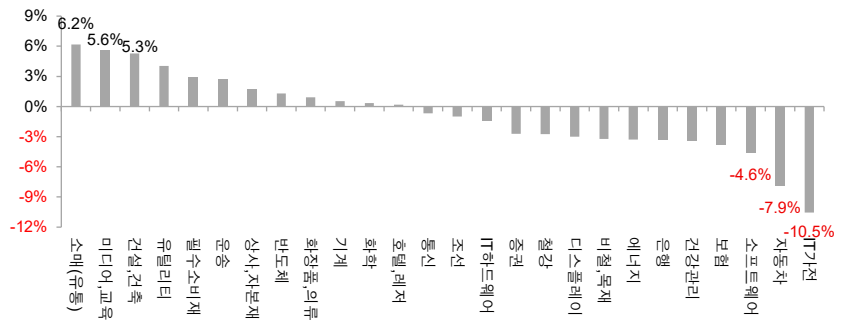
6/12 KOSPI 증가
8,123pt로
주간 수익률 -0.5% 기록

지난주 KOSPI는 8,123pt로 마감하며 주간 수익률 -0.5%를 기록했다. 주간 기준 수익률 변화는 제한적이었으나, 일중 변동성은 극단적으로 확대된 한 주였다. 주 초인 월요일에는 KOSPI와 KOSDAQ 모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급락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에도 변동성이 지속되며 한 주 동안 KOSPI는 매도 사이드카 2회, 매수 사이드카 2회가 발동됐고, KOSDAQ 역시 매도 사이드카 1회, 매수 사이드카 1회를 기록했던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였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도 KOSDAQ이 KOSPI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KOSPI 전체 이익 모멘텀 둔화 속에서도
금융, 산업재 업종 이익 모멘텀 견조

한편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는 KOSPI 전체 이익 추정치 상향 폭이 점차 둔화되며 이익 개선 사이클이 소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보험, 은행 등 금융 업종은 견조한 이익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철강, 건설/건축, 기계와 같은 산업재의 모멘텀도 지속되고 있다.

도표 15. 한국 증시 업종별 주간 수익률(~2026.06.12)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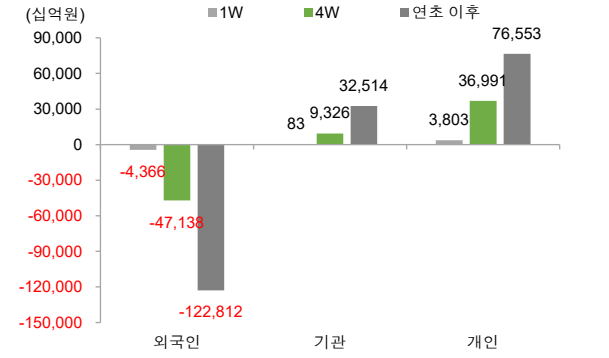
도표 16. 한국 주간 업종별 수익률 및 12MF EPS 추정치 변동 테이블(~2026.06.12)

	주간 수익률 (%)					12M fwd EPS 추정치 변동 (%MoM)				
	05.15	05.22	05.29	06.05	06.12	05.15	05.22	05.29	06.05	06.12
KOSPI	-0.1	4.7	8.0	-3.7	-0.5	20.4	21.8	13.6	9.8	8.4
KOSDAQ	-6.5	2.8	-7.4	-6.7	2.7	5.3	4.8	4.4	4.8	4.0
에너지	-8.8	9.9	-0.7	-5.4	-3.3	58.5	97.3	69.9	58.5	43.6
화학	-12.3	1.5	-1.9	-9.0	0.3	61.3	60.6	42.2	11.8	9.1
비철문제	-7.0	0.6	-5.7	-7.9	-3.2	1.6	-8.1	-7.9	-8.2	-3.4
철강	-8.7	-4.9	-5.6	-8.2	-2.8	5.0	6.5	7.2	1.4	2.6
건설/건축	-11.4	-0.1	-4.5	-8.8	5.3	17.9	10.4	7.4	5.7	7.0
기계	-12.7	1.4	-9.1	-7.4	0.5	3.7	4.0	2.5	2.8	4.0
조선	-7.4	3.3	-2.3	-5.8	-1.0	9.3	9.7	8.4	9.3	6.1
상사/자본재	-3.4	4.6	1.1	-3.0	1.8	16.1	36.0	25.8	19.4	3.0
운송	-2.2	0.5	-2.8	-4.8	2.8	-0.9	1.3	2.2	2.6	4.0
자동차	10.8	-2.9	8.8	-5.2	-7.9	-2.3	-1.5	0.5	0.5	0.6
화장품/의류	-3.1	-2.7	-5.0	-2.2	0.9	8.1	8.6	6.3	4.1	2.8
호텔/레저	-3.6	-4.7	-4.7	1.0	0.2	-1.2	-0.1	-1.3	2.7	2.4
미디어/교육	-1.9	-3.9	-6.4	-4.4	5.6	-11.1	-10.7	-9.4	1.3	2.7
유통	3.7	-5.2	-5.3	7.4	6.2	9.6	10.1	8.9	9.2	1.8
음식료/담배	0.2	-1.0	-4.8	-3.1	2.9	3.2	4.1	5.0	3.8	1.7
헬스케어	-3.8	-0.3	-2.5	-7.4	-3.4	5.5	3.0	2.4	2.8	1.4
은행	-4.3	2.3	-5.3	9.5	-3.3	1.2	1.1	0.6	0.6	0.7
증권	-9.8	-0.1	-8.1	-0.4	-2.7	7.2	7.2	7.5	8.2	5.8
보험	6.2	9.3	1.1	9.3	-3.8	5.6	10.1	11.2	11.9	12.7
소프트웨어	-1.9	-1.1	10.2	-1.5	-4.6	2.2	1.8	1.8	2.3	1.1
IT하드웨어	2.7	19.1	34.2	-15.6	-1.5	15.4	16.8	13.4	10.5	12.0
반도체	3.4	7.5	12.5	-3.1	1.3	26.2	25.4	15.0	10.3	9.6
IT가전	-2.4	2.9	8.3	-9.6	-10.5	27.8	26.7	18.1	10.5	5.8
디스플레이	0.2	4.2	-5.9	-6.5	-3.0	-8.1	-7.9	0.8	4.9	1.2
통신	5.1	-1.3	-2.4	2.9	-0.7	-0.5	0.2	-0.2	-0.1	0.6
유틸리티	-10.2	0.5	-4.1	-2.9	4.0	-0.5	0.2	-0.2	-0.1	0.6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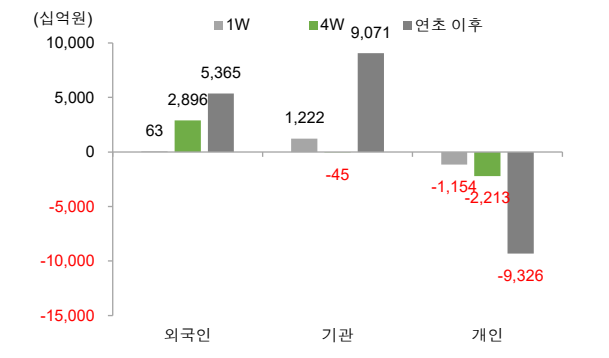
지난주 외국인은 KOSPI는 순매도 하고 KOSDAQ은 순매수했으나 전주대비 그 폭은 축소되었다. 건강관리, 화학, IT하드웨어, 운송, 보험을 매수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차익실현은 여전히나 금액이 줄었다. 반면, 기관의 경우는 KOSPI와 KOSDAQ 모두를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상사/자본재, 기계, 은행, 조선을 순매수했으나 IT하드웨어, 건강관리, 에너지, 디스플레이, 철강은 순매도했다.

도표 17.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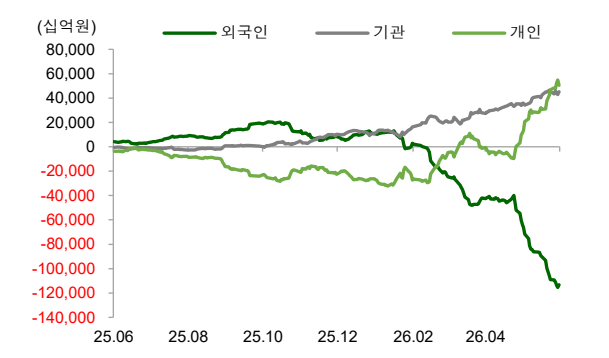
주) 2026.06.12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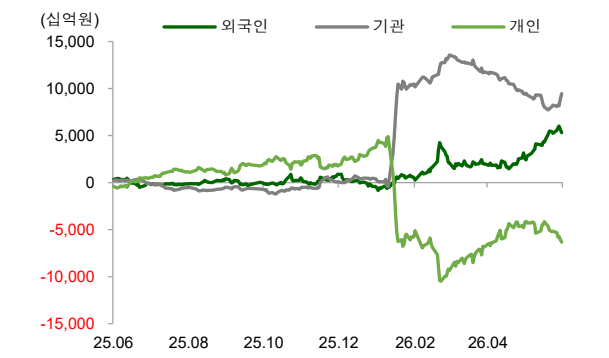
주) 2026.06.12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6.12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6.12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1. 주간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건강관리	334.5
화학	145.3
IT하드웨어	59.7
운송	21.8
보험	17.5
반도체	-1,433.7
기계	-673.5
상사, 자본재	-560.9
자동차	-537.9
조선	-517.4

주) 2026.06.12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2. 주간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반도체	900.2
상사, 자본재	809.2
기계	656.5
은행	412.5
조선	355.5
IT하드웨어	-661.8
건강관리	-257.6
에너지	-15.9
디스플레이	-12.9
철강	-4.0

주) 2026.06.0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6/1	6/2 COMPUTEX 2026(~6/5) PANW, DG, ULTA	6/3 미 5월 ADP 비농업 고용 미 5월 ISM 서비스 지수 AVGO, CRWD, MDT	6/4 연준 베이지북 공개 LULU	6/5 미 5월 고용보고서 미 5월 실업률
6/8	6/9	6/10 ECB 통화정책회의(~6/11) 미 5월 CPI ORCL	6/11 미 5월 PPI 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ADBE, LEN	6/12 미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SpaceX 상장예정일
6/15	6/16 일 BOJ 금정위	6/17 미 연준 FOMC(~6/18) 미 5월 소매판매 KMX	6/18 BOE 통화정책회의 ACN	6/19 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6/22	6/23 FDX	6/24 MU	6/25 미 5월 PCE 미 1분기 GDP 확정치	6/26
6/29	6/30 CCL, NKE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업자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업자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